

비중확대 (유지)

김선미 연구위원
✉ sunmi.kim@shinhan.com

김도연 연구원
✉ doyeon.k@shinhan.com

신한생각 | 늘어나는 사업기회, 실적 개선 여력에 주목

9/22일 대미투자 1호사업 확정 이후 셀온(Sell-on) 현상으로 건설업종 주가 5.7% 하락. 수습조원 단위의 사업 규모 및 양국의 침해한 이해관계 고려 시 향후에도 대미투자 관련 건설업종 주가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국내 건설사의 공급망 및 시공경쟁력.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 계획이 무산되지 않는 한 국내사 수주기회는 분명

자재경로로 원전 수주파이프라인 늘려가는 현대건설의 주가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높겠으나, 데이터센터, 국내 주택착공, 지방 활성화 등에서 실적 향상이 확인되며 업종 전반적으로 주가 안정적인 상승세로 전환 가능할 전망

사업내용 구체화까지 장기간 소요되겠으나, 국내사 수혜 구조는 명확

9/22일, 사업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6.3GW) 프로젝트를 확정 발표. 투자비는 총 223억달러, 목표 투자수익률(IRR) 15%대. '발전 기자재·설계·시공·장기 O&M 전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노력'이라는 합의가 있었고, 터빈을 포함한 한국산 기자재에 대해 유사 프로젝트에 공급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보도. 그러나 아직 한국 기업 참여율 및 업무범위 등은 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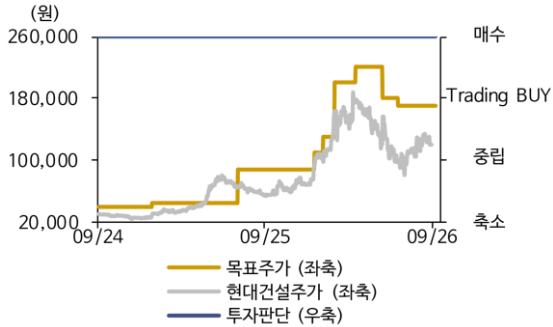
원전 프로젝트(8기)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추후 협의 과제로 분류. 장기전력구매계약(PPA) 확보 외 양국간 수익/리스크 배분 구조, 웨스팅하우스 지분·의결권 구조, AP1400 노형 참여 여부 등 선결과제가 많기 때문

구체적 사업구조 확정까지 장기간 소요되겠으나, 분명한 점은 미국의 전력 확대 필요성(NERC, 2030년까지 미국 60% 지역 전력부족 위험 평가). 이에 앞서 진행된 일본 대미투자 역시 구체화된 프로젝트 1,100억달러 중 1,063억달러가 가스화력, SMR 등 전력분야에 집중. 중단기적으로는 한국/일본의 생산능력을 활용해 전력공급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국내 공급망·제조역량 재구축을 목표. 국내사는 이 과정에 있어 초기 핵심 파트너사 역할을 담당하는 것

사업자금 출처에 따라 수주방식, 계약구조, 지분율(=국내사 수혜 규모)이 결정되겠으나, 대형원전 공급망 및 시공경쟁력 기반으로한 국내사 수혜 구조는 불변. 최근 테라파워 4세대 SMR 초도호기 사업에서 벡텔이 협력을 중단, 현대건설이 인계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이를 방증. 결국 핵심은 사업리스크 분담구조인데, 전력공급의 시급성, 국내사 '완공·가격·성능 보증' 능력, 제한적인 대체 시공사 풀 등을 고려 시 국내사가 무분별하게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사업구조 확정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원전 프로젝트의 계약구조가 구체화될수록 건설업종 리레이팅 가능할 전망

투자 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현대건설 (000720)



일자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원)	과리율 (%)	
			평균	최고/최저
2024년 07월 22일	매수	40,000	(27.4)	(16.4)
2025년 01월 23일		6개월경과	-	-
2025년 01월 23일	매수	45,000	9.2	80.2
2025년 07월 24일		6개월경과	46.9	48.4
2025년 07월 30일	매수	88,000	(26.4)	4.5
2026년 01월 14일	매수	110,000	(3.8)	(0.7)
2026년 02월 02일	매수	130,000	(5.0)	24.6
2026년 02월 27일	매수	200,000	(21.3)	(5.7)
2026년 04월 14일	매수	220,000	(29.8)	(18.4)
2026년 06월 12일	매수	180,000	(35.3)	(17.9)
2026년 07월 16일	매수	170,000	-	-

주: 목표주가 과리율 산출 기간은 6개월 기준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선미, 김도연)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차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

종목	섹터	매수 (매수)		중립 (중립)		축소 (매도)	
		94.51%	Trading BUY (중립)	2.20%	중립 (중립)	3.30%	축소 (매도)
		0.00%					

종목	◆ 매수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이상	섹터	◆ 비중확대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수 비중이 높을 경우
	◆ Trading BUY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10%		◆ 중립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립적일 경우
	◆ 중립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20%		◆ 축소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Reduce가 우세한 경우
	◆ 축소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20% 이하		

신한투자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6년 9월 25일 기준)

매수 (매수)	94.51%	Trading BUY (중립)	2.20%	중립 (중립)	3.30%	축소 (매도)	0.00%
---------	--------	------------------	-------	---------	-------	---------	-------